

裴鉞〈孫恪〉研究*

俞炳甲**

◁ 목 차 ▷

- I. 序言
 - II. 내용의 眞假 관계
 - III. 지괴서술의 이중성
 - IV. 묘사수법의 예술성
 - V. 結語
-

I. 序言

중국소설은 육조의 '조잡하고 개략적인' 소설 형태에서 당대에 이르러 점차 서술의 미려함과 구성의 치밀함을 추구하는 등 의식적 창작을 시도함으로써 중국소설사상 불만한 성취를 획득하였다.¹⁾ 그러나 육조의 지괴전통을 답습한 당대 지괴류는 비록 후기에 생산된 작품일지라도 여전히 황당한 내용으로 인해 뚜렷한 시대적 구분이나 특징의 차이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도 관점에 따라 그 갈래의 편입에 모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아울러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당대 지괴류 소설 중 적지 않은 작품은 '異類'가 사람으로 변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妖怪'라 지칭되는 이들 이류 중에서 특히 여성으로 변신한 경우를 '妖'라 칭하는데 일부 작품에서는 '妖'라 할지라도 사람

* 본 논문은 청주대학교 2010-2011년도 교내 특별연구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청주대학교 중국학부 중어중문학전공 교수

- 1) 魯迅《中國小說史略》第八篇：「傳奇者流，源蓋出于志怪。」라 밝히고 「所成就乃特異」라 하였으며 「雖尙不離于搜奇記逸，然敘述宛轉，文辭華豔，與六朝之粗陳梗概者較，演進之跡甚明，而尤顯者，乃在是時則始有意爲小說。」이라고 평함.
- 2) 胡應麟《少室山房筆叢·九流緒論》：「至於志怪·傳奇，尤易出入，或一書之中，二事并載，一事之內，兩端具存。」

과 '同類'로 간주하여 인류의 전용 호칭인 '氏'를 붙여 題를 삼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록 '妖'에 관한 고사가 모두 허구에 속하고 '街談巷語'에서 출발하였지만 반복 유전되며 더욱 기이하고 견고한 구성과 우수한 인물 형상을 구현한데 기인한다. 즉, 당대 문인의 손에 의해 탄생된 지괴류 작품은 이전의 지괴적 전통을 탈피하여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인물의 전형화를 이룸으로써 이류라 할지라도 독특한 풍격과 가치를 구비하여 사람의 일과 다르지 않음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³⁾ 이에 본고는 異類가 인간으로 변신한 裴鏞의 〈孫恪〉을 분석하여 이류에 대한 당시의 관념과 표현수법 및 창작 의도를 알아봄으로써 당대 지괴류소설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太平廣記》445권 〈畜獸類〉에 실려 있는 이 작품은 편말에 그 출처를 '傳奇'에서 나왔다고 주를 달았다. 중당시기 元稹 〈鶯鶯傳〉의 篇名이자 만당 裴鏞 저작의 소설집 이름으로 사용된 '傳奇'란 명칭은⁴⁾ 고대 시문을 중시한 문단 풍조와 기이한 행적과 怪事를 기록한 허구적 특징에 연유하여 현재는 당대의 문언단편소설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금시대의 諸宮調나 원대의 잡극, 명대 이후의 개량된 南戲 역시 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본고에서는 다른 문학과와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 당대 문언단편소설을 '당대소설'로 칭하고, '傳奇'는 본 연구의 텍스트가 실려 있는 배형의 소설집에 국한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편 대한 전문적 연구는 매우 적어 王夢鷗의 〈袁氏傳索隱〉과 吳宏一의 〈唐傳奇'孫恪'故事背景探微〉⁵⁾에 불과하며 본 고사와 관련된 시가 연구로 馮文淑 〈孫恪和袁氏傳奇詩歌小說〉이 있다. 또한 唐代소설 각 편 분석 작업의 일환인 본 연구는 《太平廣記》를 校補한 汪辟疆 《唐人小說》본과 王夢鷗 《唐人小說校釋》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번역은 국내 기존작품들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II. 내용의 眞假 관계

본편의 작가 裴鏞에 대해 史書에는 기록이 없지만 흩어져 있는 약간의 내용을

3) 俞炳甲 〈沈既濟'任氏傳'연구〉: 《中國小說論叢》2002년 제15輯, 85-87쪽 참조.

4) 趙德麟 《侯鯖錄》5권 〈商調蝶戀花詞〉序: 「夫傳奇者, 唐元微之所述也。」 陳翰 《異聞集》도 鶯鶯故事의 제목을 '傳奇'라 하였다. 《新唐書·藝文志》에는 「裴鏞, 傳奇. 三卷。」

5) 王夢鷗 《幼獅月刊》48권 5期. 吳宏一 《中國文哲研究集刊》, 1992년 2期.

통해 일부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號가 谷神子이며 대략 咸通(860-73)초기에 출사하여 侍御史, 檢校御史中丞을 거쳐 乾符 5년(878)에 御史大夫 겸 成都節度副使가 되었으며 이후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⁶⁾ 그가 《전기》를 지은 목적은 ‘도술로써 高駢을 우롱하려고 傳奇를 지었는데 대부분 신선이나 귀신의 일을 말하여 아첨하였다거나⁷⁾ 혹은 ‘고병의 막료였기에 그의 책 대부분은 신선술이나 변화막측한 일들을 기록하였다⁸⁾는 관련 기록으로 미루어, 그가 出仕하기 전인 大中 후기부터 高駢의 휘하시기는 물론 乾符 원년(874)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대부분 도가 신선술의 服食 연단에 관한 신괴한 고사로 《태평광기》에서 출처를 ‘傳奇’라 기록한 30편 가운데 <崔煒> <裴航> <韋自東> 등 약 16편이 신선이나 도사를 제재로 사용하였으며, <聶隱娘> <崑崙奴> 등 5편은 異人을, <鄭德璘> <蕭曠> 등 5편은 귀신을, <孫恪> <盧涵> 등 4편은 요괴를 제재로 한 작품이다. 제재상으로 볼 때 <손각>은 대다수 작품에서 보이는 도교적 習氣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창작 활동 초기에 쓴 것으로 추정되며,⁹⁾ 편말에 남부 광동지역의 산세와 지명 및 구체적인 사찰 이름까지 표기한 것에 비추어 작가가 이 부근을 다녀온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대 陸楫은 《古今說海》를 纂輯하며 <別傳家>에 이 작품을 수록하고 제목을 <袁氏傳>이라 하였으며 注에 지은이를 顧夙으로 기재하였다. 고행은 五代 後蜀시기 사람으로 太衛며슬을 지냈으며 長短句가 전하고 있으나 본편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新唐書·藝文志》나 蘇軾이 峽山寺를 지나며 지은 《峽山詩》¹⁰⁾ 등 北宋 이래 모든 기록에서 裴鏞의 작이라 명기하고 있어 顧夙 저작설은 집록과정에서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¹¹⁾

작품 내용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본모습으로 변해 떠난

6) 작가와 《傳奇》의 완성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兪炳甲 <裴鏞 聶隱娘傳 研究> 참조. 《中國學論叢》 2011년 제33집, 182-187쪽 참조.

7) 明 徐渭 《南詞敘錄》: 「裴鏞乃呂用之客, 用以道術愚弄高駢, 作傳奇, 多言仙鬼事詔之。」(張清微 《明清傳奇導論》), 8쪽 재인용.

8) 晁公武 《郡齋讀書誌·傳奇》敘錄: 「鏞爲高駢客, 故其書多記神仙恢譎之事。」

9) 王夢鷗 <傳奇校補考釋>: 「孫恪, 篇中言狐, …… 皆無道家習氣, 亦似其早期戲墨。」(《唐人小說研究》 1971년 1집), 90쪽 참조.

10) 《蘇文忠全集》<後集> 4권: 「佳人劍翁孫, 游戲暫人間間. 忽憶嘯雲侶, 賦詩留玉環. 林深不可見, 霧雨羸鬢髮。」注: 「傳奇所記孫恪袁氏事, 卽此寺, 至今有人見白猿者。」

11) 王夢鷗 《唐人小說校釋》下冊 <孫恪敘錄>: (台北, 正中書局, 1985) 108쪽 참조.

다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난한 수재 孫恪이 낙제한 후 낙양에서 우연히 袁氏를 만나 처로 맞이하나 孫恪을 만난 사촌형 張閑雲이 그의 기색에 요기가 가득하다며 보검을 주어 袁氏를 제압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袁氏는 그 검을 손쉽게 부러뜨리고 孫을 심하게 질책하고 이내 용서한다. 후에 袁氏는 두 아들을 낳고 엄하게 가정을 다스리다 孫이 王縉의 추천으로 벼슬을 위해 南康(廣州)으로 부임할 때 함께 임지로 떠난다. 하지만 端州 峽山寺를 지나던 袁氏는 절을 방문해 碧玉環을 돌려주고 끝내 손각 부자와 이별한 채 홀연히 늙은 원숭이로 변해 무리와 함께 산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승려 惠幽의 입을 통해 원래 이 원숭이는 그가 기르던 것으로 開元시기에 高力士가 京都로 데리고 가 천자에게 진상하여 上陽宮에서 양육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당대소설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開場수단은 고사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 서두에 시간과 장소 및 인물을 밝히는 史傳體식 서술을 이용하였는데 본편 역시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¹²⁾ 아울러 袁氏가 보검을 부러뜨리는 부분과 결미에 원숭이로 변해 무리와 함께 입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현실 생활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도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름이 거론된 등장인물은 남주인공 손각 이외에 사촌형인 張閑雲과 오랜 친구인 재상 王縉 및 張萬頃 大夫, 그리고 峽山寺 승려 惠幽와 高力士다. 고사 속의 孫恪과 惠幽는 史傳이나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허구인물로 추정되며 王縉은 《新·舊唐書》 118권과 145권에 각각 傳이 있다. 이에 근거하면 왕진은 字가 夏卿이며 당대 유명시인 王維의 아우로 시문에 능하였고 安史의 난에 상당한 공로가 있어 代宗 廣德 2년(764) 黃門侍郎에 제수되어 재상(相國)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고사 속에 손각이 왕진과 오랜 친구라는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王縉의 《全唐詩》에 〈孫秀才〉에게 보낸 시 한 수가 있지만 손수재가 손각인지 고증할 방법은 없다. 다만 왕진이 장만경에게 孫을 經略使判官에 추천한 시기는 그가 재상 신분이 된 廣德2년(764)년 이후로 소개되었지만, 손은 이시기에 원씨와 결혼하여 부호들과 어울려 술과 노래로 삼사년을 보내고,¹³⁾ 다시 두 아이를 낳아 기른 10여 년 후이기에 때문에 적어도 광덕 이후 13년이 지난 大曆 말(777)에서 建中(780-783)시기에 추천을 하였을 것이다.

12) 「廣德中, 有孫恪秀才者, 因下第, 遊于洛中。」

13) 「不求名第, 日洽豪貴, 縱酒狂歌, 如此三四歲, 不離洛中。」

장만경에 대해서는 傳이 없으나 《全唐詩》와 《安祿山事蹟》 및 《通鑑》, 《冊府元龜》 등에 단편적이 기록이 남아 있다.¹⁴⁾ 이에 의하면 그는 開元시기 진사출신으로 天寶년간에 博陵대수를 거쳐 河南尹을 지내다 낙양에서 안록산에 잡혔으나 낙양 수복 이후 皇親과 백성을 잘 보살핀 공으로 죽임을 면하였다. 이후 乾元 원년(758) 濮州刺史에서 廣州都督五府節度使¹⁵⁾가 되었지만 上元 2년(761)에 뇌물 죄로 龍標현위로 좌천되었다.

이를 소설 내용과 비교하면 孫이 張에게 추천된 시기는 張이 五府節度使 겸 經略使로 재직하던 乾元(758-9)에서 上元2년(760-761)의 4년 사이이다. 즉, 王縉이 재상이 된 시기는 張이 經略使에서 좌천된 이후로 소설 속의 연대와 16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작가가 실존인물의 성명과 그에 관한 일부 사적을 역사사실에 부합되게 서술하면서 연대를 틀리게 기록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고사 발생시기와 본편의 시작시기(860-874)에 거의 100년의 차이가 있어 소문으로 떠돌다 와전된 내용을 배형이 기록함으로써 착오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작가가 내용을 수식하고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로 실존인물과 역사사실을 왜곡하여 등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자는 배형의 《傳奇》에 수록된 <聶隱娘>의 劉昌裔나 <裴航>에서의 友人 崔植, <崑崙奴>의 郭子儀 등과 같이 역사인물을 신선이나 이인과 연계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고사의 사실성을 부각하려 일부 실명을 거론하고 다방면에 걸쳐 역사사실과 결부시켰더라도 이는 예술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식적 안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작가의 개성에 따라 상상력을 동원해 실존인물과 사적을 허구인물에 배합해 허와 실을 교묘히 연결하는 수법은 오히려 실존 인물들보다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자유분방한 구성과 표현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예술적 허구는 동일한 소재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독자의 호기심과 충격을 유발하여 진행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소설의 창작과 서술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소설에 대한 충분한 자각의식에서 비롯된 당대소설의 이러한 창작수단은 당 이전 소설과의

14) 《全唐詩》 202권 芮挺章 <國秀集>과 姚汝能 《安祿山事蹟》 中권 및 《通鑑·唐紀》 36, 《冊府元龜》 700권 <牧守部> 등에 근거.

15) 《舊唐書·地理志·廣州》: 「永徽後(655)以廣, 桂, 容, 邕, 安南府, 皆隸廣府, 謂之五府節度使. 乾元元年復廣州, 州內有經略軍, 廣州刺史充嶺南五府經略使.」 《唐會要》 78권: 「嶺南節度使, 至德二載正月, 賀蘭進明除嶺南五府經略使兼節度使, 自此始有節度之號.」

근본적인 구별을 가능케 하는 잣대가 되어 소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Ⅲ. 지괴서술의 이중성

고대부터 괴이한 일을 기록하는 중국 지괴류 소설의 습성은 漢代 이전의 《山海經》《穆天子傳》 등에서 청대 《聊齋志異》까지 끊임없이 등장하였으나, 그 내용을 분류하면 대략 귀신이나 혼백, 점복이나 異人, 요물이나 정령의 세 가지로 귀납된다.¹⁶⁾ 특히 요괴는 인간에게 재앙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그 관계가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사람들은 이들을 멀리하고 증오하며 심지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회관념은 육조뿐 아니라 당대에도 여전하여 《玄怪錄》의 〈崔書生〉과 같이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지녀도 오히려 ‘狐魅’로 오인하거나 《廣異記》의 〈李元恭〉 같이 선행을 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요괴에 대한 당시의 이러한 인식과 관념은 본편에서도 장한운이 손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릇 사람은 하늘에서 양기를 받고 요물은 음기를 타고나네. 양기인 혼이 음기인 백을 완전히 덮으면 사람은 장생하나魄이 혼을 덮어 소멸시키면 사람은 곧 죽게 되네. 그래서 요괴는 형체가 없는 완전한 음기이고 선인은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양기라네. 음양의 흥함과 쇠함 및 혼과 백의 싸움으로 신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제 위치를 잃게 되면 기색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음이 없네. 아우의 신색을 보니 음기가 양기의 자리를 빼앗아 오장육부가 비틀렸으며 양기가 이미 소모되어 의식이 점차 무너지고 진액마저 말라가고 있네. 근기가 흔들리고 뼈마져 장차 흠으로 변하려 하며 얼굴엔 혈기마저 없으니 반드시 괴이한 요물에게 녹임을 당하는 것인데 어찌 한사코 그 이유를 감추고 말하지 않는가? (夫人稟陽精，妖受氣陰氣。魂掩魄盡，人則長生；魄掩魂消，人則立死。故鬼怪無形，而全陰也；仙人無影，而全陽也。陰陽之盛衰，魂魄之交戰，在體而微有失位，莫不表白于氣色。向觀弟神采，陰奪陽位，邪于正腑，眞精已耗。識用漸墮，律液傾輸，根蒂蕩動，骨將化土，顏非渥丹，必爲怪異所鑠。何堅隱而不剖其由也。)

이러한 사유의 근간은 요괴와 인간의 관계를 음과 양으로 파악한 고대 음양학설과 상대방의 음기나 양기를 취해 자신의 기운을 보충한다는 ‘採補陰陽’의 방중술이

16) 周先慎 〈精魅的人化〉(談任氏傳在古小說發展中的意義), 《文史知識》1982년 12월.

다. 이 때문에 요괴와 교접한 사람은 자신의 기를 빼앗겨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여김으로써 사람과 요괴의 연애관계는 항상 실패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¹⁷⁾ 손각도 사촌형인 장헌운이 당시의 사회통념에 입각해 요괴와의 결별을 주장하자 어떤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조강지처를 해하려고 그가 준 보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다.

이류에 대한 이러한 사회관념은 《太平廣記》 편찬자들로 하여금 원씨가 손각과 십여 년을 부부로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았지만 편말에 원승이로 변해 산으로 들어간 내용을 근거로 <畜獸類>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명대의 《龍威秘書》와 《古今說海》는 猿類가 아닌 사람과 동류로 여겨 인류에게 붙이는 '氏'를 넣어 <袁氏傳>으로 제명을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시대변천에 따른 사회풍조나 정신사상의 변화가 소설관념까지 변화시켰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異類의 변신을 단지 요괴의 장난으로 치부해 괴이함(怪)만을 기록하던 필기식 단순서술이 점차 인간의 기이함(奇)을 묘사한 형태로 발전한 당대소설의 가치를 인식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요 결합고사에 해당하는 본편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 한다.

고대 중국에서 형성된 무속풍조와 신선술은 畜獸도 능히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유방식을 형성하였다. 즉, 인간이 장생하거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불사관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이 오래되면 정령이 생긴다는 '物老成精' 사상의 확립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다시 위진 시기를 거치며 심화되어 '정령이 오래되면 사람의 형체를 빌려 나타나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다'¹⁸⁾고 믿게 되고, 나아가 이류도 인간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됨으로써 소설의 제재로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干寶 《搜神記》 18권의 <阿紫>와 <陳羨>은 여우가 부녀의 모습으로 변하여 남자를 유혹한 고사이며, 3권에는 개가 공을 세워 會稽侯로 봉하고 사람 몸에 개꼬리를 가진 아이를 낳아 자손이 창성 하였는데 지금의 吐蕃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외에도 《洛陽伽藍記》나 《異苑》《搜神記》《異

17) 崔眞娥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3부 <유형과 구조서술의 논리> 191~2쪽 참조. (문학사, 2008)

18) 葛洪 《抱朴子·登涉》: 「萬物之老者, 其精悉能假托人形, 以眩惑人目。」 또 3권에 「狐·狸·豺·狼皆壽八百歲, 滿五百歲, 則善變爲人形。」 干寶 《搜神記》 12권: 「千年之狐, 起爲美女。」

苑》 등에는 이류가 사람으로 변해 남자를 유혹하거나 여자를 꼬드기고 함께 사는 형태의 고사가 대량으로 나타난다.

특히 猿類는 비록 문명이 진화함에 따라 인류와 분리되어 다른 種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상과 높은 지력 등 근접한 면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이미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猿人이 조화를 부리는 이야기가 생성되었다. 예를 들어 《續搜神記·黠昭》는 獼猴가 젊은 남자로 변신해 주위의 기녀들을 모두 임신 시켰다는 이야기이다.

《太平廣記》〈畜獸類〉에 실린 총 25편의 猿類 고사 가운데 당 이전 작품으로는 〈越處女〉라고 불리는 《吳越春秋·白猿》과 《拾遺記·周羣》《搜神記·猴國》 등이 있으나 대부분 괴이한 일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짧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대에 이르러 이러한 원류고사는 점차 전개과정이 명확해지고 전후가 상응하여 구성상 결집력 강화되었으며 완곡하면서도 화려한 문사 표현으로 서사문학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 생산되었다.

이는 고문운동과 같은 문학자체의 발전이나 과거제라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胡族과 같은 타민족과의 빈번한 교류와 융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 즉, 다원화의 사회 속에 포용성이 확대되고 인간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면서 이류도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성적 평가를 내리게 되었고, 나아가 요괴 역시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적대관계를 탈피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 인물과 요괴와의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지괴적 제재 속에 다양한 인간관계와 풍부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소설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당대의 猿類고사는 초기 漢代 蕉延壽의 《易林·坤之剝》卦辭에서 유래하여 필기로 발전한 후 張華 《博物志》와 《搜神記·猴國》을 거쳐 歐陽詢을 비방할 목적으로 쓰여진 〈補江總白猿傳〉과¹⁹⁾ 《宣室志·陳岩》, 《瀟湘錄·焦封》 및 〈孫恪〉이 비교적 유명하다. 〈補江總白猿傳〉은 흰 원숭이가 예쁜 여자를 납치하여 첩으로 삼아 자신의 후대를 만들고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백원이 남성으로 등장하지만 〈陳岩〉이나 〈焦封〉 및 〈孫恪〉은 여성으로 변신한 원숭이가 인간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내용이다.

19) 俞炳甲 〈補江總白猿傳의 淵源과 撰人에 관한 연구〉: 《中國學論叢》 1997년 제6輯, 55-60쪽 참조.

우선 <陳岩>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한 원숭이 侯氏가 처음 劉氏에게 시집갔으나 학대를 받아 집을 나와 진암의 처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광폭해져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끝내 도사를 초빙해 단약과 부적으로 그녀를 죽인다. 그리고 후일 진암이 유씨를 만나 원숭이로 환원되어 죽은 후씨에 대한 전후사정과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고사의 발전과정을 세밀히 그려내지는 못하였지만 은연중 그녀의 포악한 행동을 통해 원숭이의 습성이나 특징을 작품에 이입함으로써 당대 猿類고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류의 습성이나 특징을 인물의 행동과 연결하여 고사의 긴장감을 증가하고 끝내 신분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서두에 인물의 신분을 밝히고 고사 발전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술형식과는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예를 들어 狐妖를 묘사한 <任氏傳>은 인간으로 화한 이류의 본성적 특질과 인간의 감정 및 현실생활을 작품에 교묘히 융합함으로써 개략적 기술로 경계가 모호하던 육조지괴와의 구별을 명확히 한 우수 작품이다. 작가는 서두에 '任氏, 女妖也'라고 그녀의 정체성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녀의 신분을 암시하는 다양한 묘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신비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연출하였다. 그러나 사냥개에 쫓겨 여우로 변해 죽임을 당하는 결미는 오히려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독자의 놀람과 기이함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와는 달리 <陳岩>은 일반적인 서술방법에서 벗어나 이류를 현실 인물로 여기게 한 후 말미에서 이류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서술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놀람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묘사수법과 구성으로 인해 <초봉>이나 <손각>보다 예술성이 떨어진다.

<焦封>은 재능과 미모가 뛰어난 孫長史의 딸과 시문을 주고받다 하룻밤을 보내고 혼인하였으나 명예와 벼슬을 갈구하는 마음을 알게 된 손씨가 재물을 주어 초봉을 보내준다. 그러나 차마 헤어지질 못하고 도성까지 따라 왔다가 같은 부류의 원숭이들을 만나 비로소 초봉과 작별하고 형체를 되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고사의 줄거리나 신분이 드러나는 결미는 <孫恪>과 유사하나 묘사수법을 비교하면 역시 내용이 간략하고 변화와 충동이 결핍되어 예술성이 <손각>에 뒤처진다.

20) 「其始甚謹，後乃不恭，往往詬怒，若發狂之狀。巖惡之而且悔。明日巖出，婦人即闔扉，鍵其門，以巖衣囊置庭中，毀裂殆盡。至夕巖歸，婦人拒而不納，巖怒，即破戶而入，見己之衣資，悉已毀裂，巖因詬而責之，婦人忽發怒，毀巖之衣襟佩帶，殆無完縷，又爪其面，嚙其肌，一身盡傷，血沾于地，已而嗥叫者移時，巖患之，不可制。」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십여 마리의 원숭이가 왔는데 그 처가 급히 달려 나가 그들을 보더니 평소보다 배로 기뻐하며 초봉을 돌아보고는 '당신 역시 저를 돌보지 않고 동쪽으로 가더니 오늘 다행히 제 동료들이 산으로 돌아가자고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부디 스스로 자중자에 하세요'라고 말하고 나서 한 마리의 원숭이로 변해 무리들과 서로 쫓아갔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至昏黑, 有十餘猩猩來, 其妻奔出見之, 喜躍倍常, 乃顧謂封曰: '君亦不顧我東去, 我今幸女伴相召歸山, 願自保愛.' 言訖, 化爲一猩猩, 與同伴相逐而走, 不知所之.)

편말에 고사 발전에 대한 원인을 서술하는 구성방법은 서두에 이류임을 밝힌 작품보다 오락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점과 함께 결말을 알지 전까지 이치에 부합하는 일과 행동 및 감정을 묘사함으로써 대부분 현실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손각〉도 편말에서 '옷을 찢고 늙은 원숭이로 변하였다(遂裂衣, 化爲老猿)'는 구절에 이르러야 비로소 원씨가 사람이 아닌 원류임을 밝히지만 이전의 내용은 시종일관 현실 속의 '원장관 댁 규수'의 신분으로 생활한다. 이 때문에 개장부터 이류를 표방한 작품과 달리 이류의 변형이 단지 요괴의 장난이 아닌 현실인물의 투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당대 지괴류 소설의 의미와 예술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대소설이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 등의 재능을 소설형식을 빌어 표현한 '의식적 창작'이라면²¹⁾ 작품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작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고대소설에는 이류 변형의 수많은 고사가 존재한다. 특히 猿類는 인간을 닮은 형상과 행동 및 지능으로 인해 문화나 문명이 뒤떨어진 이민족으로 해석할 경우 고사의 내용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고대 중국에서는 漢族의 우월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자주 異族을 禽獸로 혹은 蠻夷와 짐승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취한데 기인한다. 예를 들면 고대부터 서남지역의 獠族, 영남의 獠族, 廣西와 湖南 등지의 獠族, 동중국 獠族 등과 같이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에 거주하는 종족 대부분의 명칭에 '獠'의 偏旁을 사용하여 猿, 猴, 獾, 狐 같은 동물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형성자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유가의 사유계통은 漢人 스스로 존귀하다는 사고를 조성하여 문화가 다른 이민족을 천시하고 나아가 이들을 禽獸로 폄하하도록 사회관념을 조장하였다. 이 때문에 역사가들조차

21) 胡應麟 〈二酉綴遺〉: 「至唐人乃作意好奇, 假小說以寄筆端。」(《少室山房筆叢》 36권) 魯迅 《中國小說史略》 제8편: 「尤顯者, 乃在是時則始有意爲小說。」

이족들을 기록하며 ‘귀는 늘어지고 맹수의 발처럼 문신을 한 무리로, 짐승같이 살며 새와 같은 말을 하는 족속’이나 ‘비록 사람의 형체를 하였으나 六畜를 넘지 못한다’²²⁾고 묘사함으로써 언어나 풍습 등이 다른 이민족에 대해 사람과 짐승의 관념이 모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손각>의 원씨를 이족 출신의 여성에 대입해 당시의 시대상황 및 내용을 분석한다면 비교적 명료하게 작품 내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손각>의 줄거리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원씨는 승려 혜유가 廣州 근교의 端州(현 淸遠縣) 峽山寺²³⁾에서 기르던 원숭이로 開元년간(713-41) 천자의 사신인 高力士가 비단과 바꾸어 낙양으로 데리고 가 황제에게 진상되어 상양궁에서 양육되다 안사의 난 때 사라진 것이 발단이다.

그 원숭이는 빈도가 사미승일 때 길렀던 것으로 개원시기에 천자의 사신 고력사가 이곳을 지나다 그의 영리함을 어여삐 여겨 비단을 주고 바꾸어 갔는데 소문에 듣자하니 낙양에서 천자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간혹 천자의 사신이 이곳을 오가며 그 원숭이가 사람보다 영리해 항상 상양궁 안에서 길들이며 키우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안사의 난 이후 어찌되었는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此猿是貧道爲沙彌時所養，開元中，有天使高力士，經過此，憐其慧黠，以束帛而易之。聞抵洛京，獻于天子。時有天使來往，多說其慧黠過人，常馴擾于上陽宮內，聞安史之亂，卽不知所以.)

작중의 高力士는 실존인물로 姓이 馮이며 南海 潘州의 蠻人출신이다. 어려서 내시가 되어 무척천 시기 입궁한 뒤 환관 楊思勛과 더불어 당 현종의 신임과 총애를 얻어 항상 곁에 있었던 두었던 인물로 소설처럼 멀리 남방까지 출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양사육은 개원시기에 세 번이나 蠻人들의 근거지를 정벌하여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고 생포한 포로를 북쪽으로 이송한 기록이 있다.²⁴⁾ 더욱이 당대 궁녀의 대부분이 변방지역 만인으로 충당된 역사에 근거할 때 원씨 역시 蠻人소녀로 어려서 포로가 되어 입궁한 뒤 上元시기에 황성 서남쪽에 창건한 上陽宮에 보충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달리 만약 원씨가 작품에서처럼

22) 《後漢書》: 「緩耳雕脚之倫，獸居鳥語之類。」《太平御覽》790권에서 인용한 《南州異物志》는 <倫類>에 결론을 덧붙여 「雖忝人形，無踰六畜。」이라 함.

23) 南朝 梁武帝 普通원년(520) 淸遠縣 북쪽 飛來峽 기슭에 창건된 절. 《淸遠縣志》 3권.

24) 《舊唐書》 184권 <宦官列傳> 134권 및 《新唐書》 207권 <宦官傳> 참조.

능히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神通한 능력을 지닌 원숭이였다면 개원에서 안사의 난이 일어난 天寶 말(755)까지 약 15년 이상을 궁에서 사육당하면서도 그러한 조짐이나 단서를 보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기미가 있었다면 간혹 협산사를 오가며 소식을 전하던 사신들을 통해 혜유에게도 알려졌을 것이지만 작품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蠻人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 후 원씨는 안록산이 낙양을 침공한 천보 말을 기점으로 종적을 감추게 된다. 사서에 의하면 이시기 상양궁 역시 전장에 휘말려 수많은 전각이 훼손되었고 이후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낙양을 방어하던 封常淸은 적군에 밀려 동문에서 宣仁門을 거쳐 都亭驛과 提象門 및 穀水까지 궁을 가로지르며 많은 전투를 벌였으나 연패하였으며²⁵⁾ 이때 적지 않은 궁인들이 민간으로 도망가 흩어졌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상양궁에 살던 원씨가 난을 틈타 민간에 흘러들었다고 가정하면 고사의 발전도 매우 순조롭게 해석된다. 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달리 친척도 없는 원씨가 '원장관 딸'의 신분으로 저택을 새로 짓고 모든 것을 새것으로 장만하여 하녀 몇 명과 함께 魏王池 옆에 살다 손각을 만난 시점이 광덕 연간(763-4)으로 안사의 난이 가까스로 평정된 763년 직후라는 점이다.²⁶⁾ 원씨의 재산에 대해서도神通술을 부려 거금을 마련하였을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란의 와중에 궁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금으로 갓 수복되어 혼란한 낙양에 새집을 짓고 이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단지 중간에 장한운이 준 보검을 마치 연뿌리를 자르듯 절단한 흥미로운 내용은 그녀가 괴이한 신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암시하여 지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란의 병화를 헤치고 스스로 '원장관의 딸'이란 신분으로 문호를 세우는 대담성과, 어린 시절 높은 산을 뛰놀던 만인 출신의 소녀였다는 경력을 감안한다면 은연중 그녀의 완력을 드러낸 부분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괴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 부분 역시 인지상정의 순조로운 발전일 뿐 원숭이류의 변괴스러운 능력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명대에 이르러 본편의 제목을 〈원씨

25) 《舊唐書》 104권 〈封常淸傳〉: 「十二月, 祿山渡河, 陷陳留, 入鬲子谷, 凶威轉熾, 先鋒至葵園. 常淸使驍騎與柘羯逆戰, 殺賊數十百人. 賊大軍繼至, 常淸退入上東門, 又戰不利, 賊鼓譟于四城門入, 殺掠人吏. 常淸又戰于都亭驛, 不勝. 退守宣仁門, 又敗. 乃從提象門入, 倒樹以礙之. 至穀水, 西奔至陝郡, 遇高仙芝, 具以賊勢告之.」

26) 「忽有一大第, 土木皆新 …… “故袁長官之女, 少孤, 更無姻戚, 惟與妾輩三五人据此第耳.”」

전)으로 개칭 편집한 것도 본편이 단지 猿類의 변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족을 짐승으로 간주한 우월성의 우회적 표현이며 작품 내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손각>을 단지 猿類가 인간으로 화한 신괴소설로 취급하기보다는 전란을 틈타 민간에 흘러들어 살고 있다는 궁녀에 관한 소문이 시중에 유전되어 이러한 이야기를 근거로 이 작품을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궁녀의 신분으로 가정을 꾸린 이야기를 사실대로 묘사할 경우 황실모독의 사회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가는 의식적으로 蠻人을 猿類로 포장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인류를 이류로 포장해 흥미 유발과 우회적 표현수법으로 현실 사회를 반영한 이러한 서술기법은 단지 지괴적 제재로 인간관계와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 비해 오히려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 의식적인 성취라고 평가된다.

IV. 묘사수법의 예술성

당대소설에 보이는 남녀간의 연애 대상은 대략 人神戀愛와 異類相愛, 재자가인 유형의 세가지로 구분된다.²⁸⁾ 그 중 이류와의 애정고사에서 혼백과의 결합이 아닌 인간과 요괴와의 결합은 여우가 변신한 심기제의 <임씨전>이 대표적이지만 <손각> 역시 구성뿐 아니라 성격이나 심리묘사 역시 매우 우수하여 이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우수성을 찾아 보려한다.

인물은 소설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고대 단편문헌소설은 직접서술을 통한 한차례의 간단한 소개 이후 인물의 성격이나 용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징이 있다.²⁹⁾ 이러한 소개는 비록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지만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저해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손각> 역시 직접서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씨의 용모를 몽롱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간략한 소개 대신 달이나 구슬, 버들가지, 난

27) 王夢鷗《唐人小說校釋》下冊〈孫恪敘錄〉에서 제시한 관점을 참조. (台北, 正中書局, 1985 108쪽 참조.)

28) 崔眞娥《환상, 욕망, 이데올로기》(문학과 지성, 2008), 171쪽 참조.

29) <柳氏傳>: 「艷絕一時」, <秦夢記>: 「其芳姝明媚, 筆不可模樣」, <霍小玉傳>: 「若瓊林玉樹, 互相照耀, 轉盼精彩射人」 등.

초, 옥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물과 이것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장황하게 그 용모를 설명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인물소개는 비록 이전의 추상적인 묘사를 답습하였지만 어느 정도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자신만의 구체적 모습을 형상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직접묘사보다는 비교적 진보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동작묘사는 사건의 발생이나 줄거리의 진행을 돕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실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도구로 <손각>도 원씨의 몇 가지 행동을 통해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손각과 처음 대면할 때 그가 훑쳐본 것을 알자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시녀를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과를 준비하고 거실을 청소하며 짐 정리를 시키는 등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거지와 일처리 능력은 그녀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양가 규수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손각과 결혼 이후 역시 잡다한 일이나 쓸데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녀의 도리를 신중하게 지키며 가정을 엄하게 다스려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행동을 통해³¹⁾ 고대 정숙한 현모양처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을 빌리러 온 손각의 사정을 듣자 서슴없이 주동적으로 대면을 청하는 모습에서 일반 부녀자와는 다른 대담성도 발휘한다.³²⁾ 이러한 대담성은 여성 혼자 커다란 저택을 운영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줌으로써 후일 사촌형 張閑雲과 함께 자신을 해치려던 손각을 매섭게 질타하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장한운의 사주로 보검을 몰래 집으로 들여 온 것을 발각한 그녀가 손각을 꾸짖는 대목은 그녀의 강인한 성격과 명석한 사리판단 및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영리하고 노련한 일면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원씨가 바로 알아차리고 크게 화를 내며 손각을 꾸짖으며 말하길: ‘그대의 곤궁한 처지를 내가 편안하고 화통하게 해주었는데 은의를 돌보지 않고 끝내 못된 짓을 하려다니, 이런 심보를 가지면 개나 돼지도 당신이 남긴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니 그러고도 어찌 절개와 덕행을 이 세상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손각이 호된 질

30) 「忽聞啓關者，一女子光容鑒物，艷麗驚人。珠初滌其月華，柳乍含其烟媚。蘭芬靈濯，玉瑩塵清。」

31) 「後十餘年，袁氏已鞠育二子，治家甚嚴，不喜參雜。」

32) 「某之醜拙，況不修容，郎君久盼簾帷，當盡所覩，豈敢更迴避耶？願郎君少佇內廳，當少暫飾裝妝而出。」

책을 당하니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외사촌 형이 시켜서 한 일이지 내 본마음은 아니오. 내 기꺼이 피를 마셔 맹세하건데 다시는 감히 다른 마음을 먹지 않으리다.'라 말하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다. 원씨가 마침내 보검을 찾아내어 토막을 내었는데 마치 연뿌리를 자르듯 가볍게 절단을 하였다. 손각은 더욱 두려워 도망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자 원씨가 웃으며: '장한운 이 보잘 것 없는 놈이 도의로서 그 동생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흉악한 짓을 시키다니 다시 오면 단단히 욱을 보이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보아하니 틀림 없이 그리 모질지 않군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배필이 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어찌 걱정을 합니까.' 손각은 비로소 조금 마음이 편안해 졌다. (袁氏俄覺, 大怒而責恪曰: '子之窮愁, 我使暢泰, 不顧恩義, 遂興非爲. 如此用心, 則犬彘不食其餘, 豈能立節行于世也.' 恪既被責, 慚顏惕慮, 叩頭曰: '受教于表兄, 非宿心也. 願以飲血爲盟, 更不敢有他意.' 汗落伏地. 袁氏遂搜得其劍, 寸折之, 若斷輕藕耳. 恪愈懼, 似欲奔迸. 袁氏乃笑曰: '張生一小子, 不能以道義誨其表弟, 使行其凶險, 來當辱之. 然觀子之心, 的應不如是. 然吾匹君已數歲也, 子何慮哉!' 恪方稍安.)

이와 같이 원씨는 유약하거나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예교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엄정한 도리로 남편을 질책하고 손쉽게 검을 부러트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또한 손각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려하자 예리한 판단력으로 오히려 웃으며 그를 달래는 순발력까지 구비함으로써 부녀의 도리를 다하는 정숙함과 시비판별의 현명함, 분노의 강맹함과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뛰어난 적응력을 보유한 여성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상황에 대처하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그녀가 단선적인 평면인물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지닌 양면성의 입체인물로 부각시키는 커다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손각은 미모의 원씨를 만나 그녀의 처지를 알자 바로 매파를 넣어 혼인을 청함으로써 미색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방금 낙제한 곤궁한 수재에서 경제력을 갖춘 원씨를 만나 순식간에 부귀하게 되자 음주가무의 호화생활에 젖어 소일하며 과거를 잊는 등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장생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의심과 질책을 당하자 처자의 은혜에 대한 풍부한 감정을 순간에 저버리고 보검을 가지고 돌아와 부인을 해하려 함으로써 쉽게 믿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 드러난다. 아울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두려운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장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씨의 능력을 보자 도망갈 궁리를

하는 모습에서 담이 작고 겁이 많으며 책임을 두려워하는 성격도 나타난다. 이같이 자신의 주장도 없이 남의 말에 현혹되고 부귀와 이익을 좇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교만하지만 담이 적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손각의 성격적 특징은 일반인의 사고와 행동에 어긋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앵앵전〉의 張生이나 〈곽소옥전〉의 李生과 같은 당시 독서인들의 품성과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함으로써 진실성을 구비한 높은 인식가치와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본편에서 가장 정채로운 부분은 인간과 원류의 본성사이에서 갈등하는 원씨 내심의 충돌묘사이다. 전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손각〉은 표면상 원승이가 변한 요괴로 묘사 되었지만 고사의 심층구성은 미개하고 황막한 오랑캐 종족의 소녀가 어려서 궁에 들어간 후 안사의 난을 만난 틈을 이용해 민간으로 도망친 傳記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씨가 비록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낙제한 서생에게 시집을 갔으나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나 가지 못하는 신세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손각과 대면하기 전 홀로 정원에서 망우초를 꺾어 들고 생각에 잠겨 읊은 시에서 그녀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그녀는 뜰 안의 망우초(원추리)를 꺾어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서 있더니 마침내 시를 지었는데: '남들은 이것을 보며 근심을 잊게 하는 망우초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썩은 풀과 같네.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있어야 비로소 내 가슴의 회포를 펼칠 수 있으리.'라 읊으며 참담한 모습이었다. (女摘庭中之萱草, 凝思久立, 遂制詩曰: '彼見是忘憂, 此看同腐草. 青山與白雲, 方展我懷抱.' 吟諷慘容.)

근심을 잊게 한다는 망우초가 마치 부초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심경과 청산과 백운 간에서 놀기를 갈망하는 가슴 속의 회포를 토로한 이 시는 시종일관 작품의 중심축이 되어 그녀를 맴돈다. 청산과 백운은 자유스러운 생활과 환경의 동경으로 이는 원류의 본성이자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는 蠻女의 소망인 것이다. 이 때문에 손각과 십여 년을 살면서 자신의 도리와 직책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였지만 남편의 임지로 향하는 남편을 따라가며 매번 푸른 숲과 높은 산을 대할 때마다 오래도록 응시하며 심기가 불편함을 느낀다.³³⁾ 즉, 익숙한 주위 환경을 대하자 고향에 대한 향수와 옛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본성의 욕망을

33) 「袁氏每遇青松高山, 凝睇久之。」

다시 일깨운다. 그리고 端州의 峽山寺에 이르러는 썩은 풀처럼 느껴지던 도시생활의 미련을 깨고 어릴 적의 기억이 부활한다.

이곳에서 반나절쯤 가면 강가에 협산사가 있어 우리 집 옛 문도승인 혜유가 이 절에 살았는데 헤어진지가 수십 년이 되었어요. 스님은 법랍이 매우 많아서 능히 사람들의 육신을 판별하여 속세의 먼지와 때를 잘 벗겨주니 만약 그곳에 들러 공양을 올린다면 우리의 남행길에 상당히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此去半程, 江壩有峽山寺, 我家舊有門徒僧惠幽, 居于此寺. 別來數十年, 僧行夏臘極高, 能別形骸, 善出塵垢, 倘經彼設食, 頗益南行之福.)

남행에서 되살아난 유년의 기억은 그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여 이내 옷을 갈아입고 단장한 후 스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자신이 뛰놀던 옛 길을 지나며 내면의 결심이 구체화되어 마침내 예전에 받았던 절의 벽옥환을 돌려주어 속세와의 인연을 정리한다. 재를 마치고 원숭이 수십 마리가 높은 소나무에서 내려와 음식을 먹고는 서로 등걸을 잡고 이리저리 도약할 때는 이미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천성과 감추어 두었던 자유생활의 갈망이 완전히 깨어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사찰 벽에 시를 지어 은정에 이끌려 마음 바쳐 생활한 지난날을 돌아보고 속절없이 스러져 가던 자신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며 동료들과 더불어 산속으로 들어가 자유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표출한다.³⁴⁾ 하지만 혈육의 친정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두 아들을 안고 슬피 울며 손각에게도 몇 번이고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를 한다. 또한 옷을 찢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무리를 따라 자신이 동경하던 산속으로 돌아가지만 그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기에 인간세상의 생활과 혈육의 친정에 대한 연연함으로 아쉬워하며 뒤돌아보는 모습에서 본성과 정감이 교차하는 내면의 갈등을 다시 드러낸다.

이렇게 옛 장소나 동료를 만나 본성이 다시 부활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형식은 <초봉>이나 <신도징> 등과 같은 작품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유사성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 즉, <초봉>에서 동료들의 부름을 받고 남편을 두고 갑자기 원숭이로 변해 함께 산으로 가는 모습이나, <신도징>에서 사람의 처가 되었으나 산림과 자연에 대한 향수와 자신의 본모습을 상징하는 호피를 발견하자 본성의 기억과 그리움

34) 「剛被恩情役此心, 無端變化幾漚沈. 不如逐伴歸山去, 長笑一聲烟霧深.」

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걸치고 호랑이로 변해 산으로 들어는 모습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 모두 원형으로 환원되는 과정이 너무나 급작스러워 오히려 생경함을 초래함으로써 고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손각〉에서 원형을 되찾아 동경세계로 회귀하는 모습은 단지 본성에 대한 기억과 향수뿐 아니라 남편과 아들에 대한 친정 및 장차 돌아올 수 없는 현실생활에 대한 미련을 복합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이전 작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세계의 이성과 자유분방한 본성의 이같은 충돌형태는 또한 풍진 세속의 인연과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세계와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천성 유지와 자연으로의 회귀는 현실사회의 굴레와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 인생이나 ‘도’를 추구하는 염원과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³⁵⁾ 이 때문에 본성과 이성 및 정감 등 복잡한 심리를 세밀하게 표현한 본편은 유사한 작품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생동감 있게 그 내면의 사유와 사상 감정을 표출한 지괴류 소설의 대표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손각〉이 비록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한 ‘猿類’고사에서 소재를 취한 지괴적 내용이지만 변방의 이민족을 異類로 표현하던 고대 습속에 비추어보면 그 내용은 당시 사회현실의 반영이자 현실세계의 투영이라 할 수도 있다. 인물묘사 또한 고사의 흐름에 따라 정숙하지만 강인하며 노련하지만 부드러운 성격을 구현함으로써 선명하고 독특한 형상을 구체화 시켰으며 내면의 본성과 이성 및 정감의 심리적 갈등을 교묘하게 표현함으로써 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孫恪〉고사는 끊임없이 전승되어 송대 蘇軾의 〈峽山寺詩〉, 劉義慶의 〈歸猿洞碑記〉 및 남송 崔輿之의 〈峽山飛來寺〉시,³⁶⁾ 원 楊觀重 刻石碑,³⁷⁾ 명 朱士贊의 〈歸猿洞詩〉³⁸⁾, 董傳策 〈游峽山飛來寺記〉³⁹⁾, 청대 屈大鈞⁴⁰⁾ 및 飛來寺 승려 南野의 〈歸猿洞次韻〉, 張鯤의 시 등 후대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35) 崔際恩, 〈天性與人性的交鋒〉: 《名作欣賞》2008년 6期.

36) 「萬里星槎海上旋, 名山今已得攀緣, 猿揮孫恪千年夢, 日照維摩半夜禪。」

37) 두 비석은 이미 없어졌으나 비문은 〈清遠縣志〉에 실려 있으며 내용이나 문자 및 인물 등의 차이가 거의 없어 원류가 동일 고사임을 보여준다. 〈南方日報〉2010. 11. 2에서 재인용.

38) 「逐隊歸山去, 玉環遺此山. 千伙傳異事, 吾意有無間。」

39) 「寺右上山, 繞出絕頂後, 探所謂孫恪遇袁氏, 有歸猿洞。」

40) 屈大鈞《廣東新語》3권 〈二禺〉: 「折而西, 爲歸猿洞, 孫恪妻留玉環之處也。」

서술하고 광주 근교 협산사의 '귀원동 전설'을 형성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희곡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원씨가 수행을 닦아 득도한 내용의 원대 <龍濟山野猿聽經> 잡극, 《錄鬼簿》 상권의 鄭廷玉 <孫恪遇猿> 잡극, 청대 陳煥의 <碧玉環>로 불리는 <仙緣記>, 《玉獅堂十種曲》의 <傳奇> 등은 모두 본 작품을 근거로 개편한 것이다. 이같이 후대 문학작품에서 원씨를 인격화 내지 신격화한 구성은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본 고사가 단지 畜獸類의 변신에 연유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 있을 것이다.

V. 結語

본고는 배형의 소설집 《傳奇》 속의 <孫恪>을 통해 이전 지괴류 소설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작품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 때문에 작품 내용의 진위를 가려 그 사작상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류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참고해 작품 내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서술상의 특징과 묘사 수법을 분석하여 본편의 예술적 성취를 살펴보았다.

우선 내용의 진위문제는 작중의 인물의 역사기록에 근거하여 그 행적을 조사한 후 작품에 비교한 결과 개인의 일부 사적은 내용과 일치하지만 인물간의 행적은 시기상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작가가 와전된 내용을 기록하였거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대소설이 의식적 창작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구성과 표현으로 예술성을 진작하기 위해 허구인물과 실존인물의 사적을 상상력을 동원해 교묘히 결합시킨 노력의 산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고대 무속과 신선술에서 연유한 요괴나 이물에 관한 인식은 능히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 인간에게 재앙을 준다는 부정적인 사회통념을 형성함으로써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이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지괴적 제재를 바탕으로 풍부한 현실생활과 인간 관계를 반영함으로써 이전의 지괴와 구별되는 소설 발전을 유도하였다. 특히 한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타민족을 禽獸로 표현한 시대관념에 근거하여 <손각>의 원씨를 어려서 입궁한 남만지역 여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로써 안사의 난을 배경으로 사람을 이류로 포장한 구성상의

새로운 시도와 이를 통해 흥미유발과 함께 현실사회를 반영한 작가의 의식적 창작 성취를 찾아내었다. 아울러 극적효과를 위해 편말에 사건 전말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倒置形 구성은 유사 구조의 타 작품에 비해 뛰어난 예술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류의 활동이 작품 전반에 걸쳐 현실과 부합함으로써 현실의 생활과 사회를 진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작상의 우수성을 찾아내었다.

한편 본편의 인물소개는 타 작품과 유사한 사전체식이지만 다양한 비유를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동작을 통해 원씨의 현숙함과 강인함,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뛰어난 판단력과 적응력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지닌 입체인물로 형상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원류의 본성과 인간의 이성 및 천륜의 친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리적 갈등을 짧은 묘사 속에 세밀하게 담아냄으로써 예술적 가치와 함께 중국 소설의 표현기교를 제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參考文獻】

- 劉 昉《舊唐書》，台北，鼎文書局
 歐陽修《新唐書》，台北，鼎文書局
 李 昉《太平廣記》，台北，文史哲出版社。
 洪 邁《容齋隨筆》，台北，世界書局，1975。
 胡應麟《少室山房筆叢》，台北，世界書局，1970。
 曾 慥《類說》，台北，藝文印書館。
 魯 迅《中國小說史略》，魯迅全集第9卷，人民文學出版社，1987。
 王夢鷗《唐人小說研究》1，4集，台北，藝文印書館，1978。
 李宗爲《唐人傳奇》，北京中華書局，1985。
 李劍國《唐五代志怪傳奇敘錄》，天津，南開大學，1993。
 吳志達《中國文言小說史》，山東，齊魯書社，1994。
 程國賦《唐代小說嬗變研究》，廣東人民出版社，1997。
 崔眞娥《환상, 욕망, 이데올로기》，문학과 지성，2008。

【中文提要】

本稿的研究目的是闡明裴鏘《傳奇》小說集之〈孫恪〉，糾明其與六朝志怪小說的差異，進而發現其在藝術上的優秀性和獨創性，確定該文學作品在中國小說史上的價值。首先，關於作品內容的眞假問題，根據出場人物的歷史眞實記錄，在考察整理有關的行蹟後，與小說內容進行相互對照，發現了一些大致相同的事實，但實存人物之間的行蹟與虛構人物的行爲在時間的安排上是不吻合。產生這種原因有兩種可能性，其一是近一百年後之作者無意中記錄已被訛傳的街談巷語，另一是爲強調故事的眞實性故意歪曲事實。但大多唐代小說是有意識的創作品，作者小說情節的安排和敘述表現的自由，發揮想象巧妙地將虛構人物和實存人物的事迹結合起來，從而創造出如此優秀的小說文學作品。

古代中國對妖鬼和異類的認識，由於它們能化爲人，進而給人帶來災殃，所以與人形成了否定的對立關係。到了唐代，因社會政治及文化等方面的巨大變化而起了價值觀的變化，於是對異類的認識也有了改變。雖然以志怪爲題材，但因其能反映出豐富的現實生活和多樣的人際關係，所以取得了與唐以前的志怪小說相比有着根本區別的小說發展。

其次，從古開始爲了表現漢族的優越性，產生他族稱或比謂禽獸的時代觀念。據此，從新的角度來再次解釋〈孫恪〉的袁氏身分，因而發現本故事是以安史之亂爲背景，將幼年時被擄的蠻荒少女，宮掖充配上陽宮十餘年，適逢國難逃竄民間的人物傳記，在描寫結構上初次採用將人類換成猿類的獨特藝術手法。爲了引發讀者興趣和故事發展的環環相扣的效果，作家直至篇末才流露出袁氏身分以及說明故事的顛末。這種倒敘法雖然不是此篇最初開始，但與類似情節結構的其他作品相比，具有較強的藝術感染力。

另外，〈孫恪〉的人物介紹雖是唐代小說最普遍的‘史傳體’式直接敘述，但通過多種比喻來刺激讀者通過其自身的想像而成功地描繪出其形象。且隨着故事發展利用各種動作，描寫了袁氏的賢淑柔婉和強勁蠻性的兩面性格，塑造出具備按事順變的判斷力和適應力的立體人物。特別值得一提的是，本篇生動細膩地表現了猿類的本性和人類的理性及天倫的親情之間的內心衝突，並且深刻精彩地反映了擺脫現實生活束縛，回歸自由生活的渴望。在創作上展顯的上述種種藝術技法，就是作者着意運用技巧的成果，不但可以確認出〈孫恪〉的憂愁性

和獨創性，又提高唐代小說寫作的藝術價值，以幫助本篇在中國小說史上之價值的確認。

【主題語】

傳奇，孫恪，袁氏，志怪，猿類，異類

Zhuànqí, sūn-kè, Yuánshì, zhìguài, ape species, elfin.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